

칼럼

한국영화, 한국음악, 한국드라마, 한국문화는 우수하다



김윤호 주필·행정학박사·국회출입기자포럼 회장

지난 9월 12일(현지 시간)m 로스앤젤레스 마이크로소프트 극장에서 미국 TV예술평화아카데미(The Academy of Television Arts & Sciences·ATAS)가 주관한 제74회 프라임타임 에미 시상식(Primetime Emmy Awards)에서 황동혁 감독(51)이 감독상을, 배우 이정재(50)가 남우주연상을 수상했다. 세계적인 엔터테인먼트 넷플릭스의 오리지널 한국 드라마 '오징어게임'이 비(非)영어 드라마 최초로 미국 최고 권위의 TV 부문 74년 역사의 에미상의 벽을 허물고, 언어의 장벽을 뛰어 넘어 한국문화의 새 역사를 만들었다.

특히 시상식 무대 오른쪽에 드라마 속 게임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의 스퀘어 인형 영화의 모형이 설치되어 있어서, 어린 시절 시골집 마당에서 동네 동무들과 스퀘어잡기하던 추억이 새록새록 떠올랐다.

앞서 9월 4일 열린 드라마 기술진 등에 대한 에미상 시상식에서 게스트 여우상(배우 이우미), 프로덕션 디자인상(채경선 미술감독), VFX특수효과상(정재훈 슈퍼바이저), 스텐트상(심상민·이태영 무술팀장, 김차이 무술원) 등을 수상하여 에미상 6개 부문을 휩쓸었다. 작년 9월 17일 공개되어 3일만에 미국 방송계 1위, 1주일만에 세계 1위가 되고 1년 만에 세계적인 신드롬을 일으키고 있다.

우리나라 배우들이 근래 영화·드라마 분야 '세계 무대'에서 맹활약한 역사를 살펴보면, 올해 5월 7일 세상을 떠난 56세(1966년생) 배우 강수연은 임권택 감독의 영화 '씨받이'(1986)로 베니스영화제에서 우리나라 배우 최초로 국제영화제에서 여우주연상, '아제 아제 바라아제'(1989)로 모스크바영화제 여우주연상을 수상했다.

2007년 영화 '밀양'으로 배우 전도연이 칸 영화제에서 여우주연상을 수상했다. 2020년 세계에 한국 영화와 배우의 저력(底力)을 보여준 영화 '기생충'에서 기생충 팀은 제26회 미국 배우조합상 시상식에서 최고상인 앙상블상을 수상했고 세계 3대(大) 영화제로 꼽히는 프랑스 칸 영화제(Festival de Cannes)에서 감독상(박찬욱), 한국 남자 배우 최초로 남우주연상(송강호)을 받았다.

2021년 미국 영화예술평화아카데미(AMPAS)가 주관하는 제93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데뷔 56년차인 배우 윤여정은 영화 '미나리'로 미국 아카

데미상, 미국 배우조합상(SAG), 영국 아카데미상 등에서 각각 여우조연상을 받는 등 한국 배우 최초로 여우조연상을 받았다.

사이의 '강남 스타일' 말춤 열풍으로 세계를 홀리더니, 그룹 방탄소년단이 그레미 어워드, 빌보드 뮤직 어워드, 아메리칸 뮤직 어워드와 더불어 미국 4대 대중음악 시상식 중 하나인 MTV 비디오 뮤직 어워드(2022 MTV Video Music Awards)에 2019년 처음 수상 후보에 오른 이래 2022년까지 4년 연속 '올해의 그룹(중전 베스트 그룹)'상을 수상했다. 2022년에는 빌보드·아메리칸뮤직어워드에서도 수상했다. K팝 걸그룹 블랙핑크도 처음 참가한 2022 MTV 비디오 뮤직 어워드에서 베스트 메타버스 퍼포먼스상, 베스트 K-팝(Best K-pop)상을 수상했다.

밤을 새우며 보았던 오징어게임이 지금까지 보았던 영화나 드라마와는 차원이 다르다는 것은 실감했지만, 이렇게 세계인의 호응을 받을 줄은 몰랐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 세계인이 열광할만한 이유가 충분히 있다. 인간은 부차적인 초라한 존재가 되고, 돈과 자본이 주인이 되는 자본주의 사회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인 빈부격차(불평등, 양극화)와 기회의 박탈(계층 상승 사다리의 부재)를 다루고 있다. 오징어게임이 다른 문제는 국제적인 경제불황, 물가상승 등 인플레이션과 겹쳐 세계인의 공감을 받고 있다.

먹이를 보던 목숨을 걸고 죽기살기로 달려드는 오징어 떼처럼, 456억원 상금의 최후 승자(소유자)가 되기 위하여 목숨을 걸고 무지막지하게 달려드는 인간의 모습이 같다는 것은 불편한 진실이다. 자본주의를 상징하는 미국에서도 기생충이나 오징어게임처럼 자본주의에 대한 풍자가 잘 드러난 작품은 없었다. 빈부격차가 심화되면서 절망하고 자포자기하는 시대를 세련되고 치밀한 방식과 인간관계에서 나오는 깊이있는 이야기, 창작자의 천재적인 창의력과 배우들의 열정, 감독의 날카로운 현실 인식과 예술적 성취가 거둔 쾌거이다.

오징어게임이 거둔 성취는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룩한 종합 국력 10위의 대한민국이 문화강국, 문화 선진국으로 올라섰다는 반가운 소식이다. 이제 우리 대한민국은 위대한 우리 국민들의 힘으로 인도의 시인 타고르(Tagore)가 예언한 '동방의 등불'을 넘어서 세계의 등불이 되어가고 있다.

뱀에 물렸을 때 응급처치 방법은?

정은주 담양119구조대 소방교



적 활동을 자제하여 독이 퍼지는 것을 지연시켜야 한다. 또한 반지나 손목시계 등을 제거하여 물린 부위가 부어올라 혈액순환을 방해하지 않도록 한다. 환자에게 먹거나 마실 것을 주는 것은 삼가야 하며 상처 부위는 얼음이나 찬물, 알코올은 뱀의 독을 더욱 쉽게 퍼지게 할 수 있으니 피해야 하는 행동이다. TV 나 영화처럼 상처 부위의 독을 일으켜 빨아내는 행동은 매우 위험한 행동으로 빨아들인 사람의 입안의 상처가 있는 경우 감염되거나 독이 흡수될 수 있어 위험하니 절대 하면 안 된다.

뱀에 물렸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신속하게 병원에 가는 것이다. 뱀에 물린 즉시 119에 신고하거나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병원으로 긴급 후송되어야 한다. 병원에 도착하면 의료진에게 물린 뱀의 모양, 색깔, 특징 등을 잘 기억하여 설명하거나 사진이 있다면 보여주는 것도 치료에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다.

뱀에 물렸을 때 응급처치 방법을 우리 모두가 미리 숙지하고 안전한 야외활동 즐기시길 바란다.

선선한 바람이 부는 가을이 되어 등산, 캠핑, 낚시 등 야외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뱀을 보고 신고하거나 뱀에 물려 병원을 방문하여 치료하는 환자 수도 증가하고 있다. 특히 국내에 서식하는 독사들의 독은 혈액에 작용하기 때문에 물렸을 때 곧바로 움직이면 독이 빠르게 몸에 퍼져 사망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더욱더 조심해야 한다.

뱀에 물렸을 때 응급처치 방법으로는 먼저 독사에 물린 부위보다 심장에 가까운 쪽으로 10~15cm 상방을 옷가지나 손수건 등으로 가벽에 묶어 혈액순환을 차단해야 한다. 너무 강하게 묶으면 동맥의 흐름까지 차단하여 조직 손상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손가락 한 개가 들어갈 정도로 묶어야 한다. 혈액순환을 차단한 후 30분에 한 번씩 풀어서 혈액을 순환시켜주어야 한다. 이후 물린 부위를 심장보다 낮게 유지해야 하며, 흥분하거나 신체

기고

자격증은 미래의 자산

기고

국종균 광주서부소방서 현장지휘팀장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하면서 고용 불안감으로 인해 자기계발이 늘어나고 기업의 경영난과 일자리 감소 등을 목격한 직장인들의 욕구에 불을 지핀 것으로 풀이된다.

지금 이 시대는 한 치 앞을 내다 볼 수 없는 불투명한 경쟁의 시대이며, 이를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콘텐츠 시대라고 한다. 콘텐츠의 경제적인 용어는 흘러 다니는 정보자체를 의미하며 사전적인 용어는 만족시키다. 기쁘게 한다는 뜻으로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을 보다 적극적으로 핵심적인 내용을 가지고 정보를 결합시켜 성과 창출을 극대화하는 것이다.

아날로그시대와 디지털시대가 있었고 아날로그 시대에는 많은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인정받는 시대로 특히 화이트칼라가 대표적인 주류였으며 디지털 시대에는 부가가치를 높이는 사람들이 인정을 받았으며 골드칼라가 대표적인 주류였다. 하지만 콘텐츠의 시대에는 창의력과 창조성이 뛰어난 사람들이 인정받는 시대이며 다양성을 추구한다.

자격증은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는 또 다른 평가 잣대다. 희소 가치가 있고 관리가 엄격하게 이루어지는 자격증은 대학졸업장 못지않은 힘을 발휘 할 때가 많다.

때문에 자격증은 공력을 쏟아 부을 만한 가치가 있는 도전할 만한 대상이다. 불안하고 치열한 경쟁구도를 떠나 자신만의 가치를 확보하고자 하는 전략인 셈이다.

필자 역시 퇴근 후 야간에 자격증 취득을 위해 학원에 가보면 수험생들을 쉽게 찾아 볼 수 있었다. 나이가 지긋한 중년의 남성부터 중년여성, 어린 학생 등 많은 사람들이 학원에서 자격증 취득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볼 때 얼마나 자격증이 필요하고 원하면 저렇게 열심히 하는지 알 수 있었다.

직장인들은 바쁜 업무에 시간은 늘 촉박하다. 주말은 가족과 함께 해야 하고 잦은 회식과 야근 때문에 공부할 틈이 나지 않지만 이 때문에 자격증 취득에 마음을 먹었다가도 공부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지 못하고 쉽게 포기하는 사례도 많다.

대부분의 포기자들은 두 가지 일을 하기가 힘들다. 직장 다니면서 공부하기가 쉽지 않다고 스스로를 위로한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니다.

하지만 자격증이라는 무기는 누구나 다 손에 쥘 수 있는 게 아니다. 아무나 취득할 수 없기 때문에 희소성과 활용 가치가 있는 것이다.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는 수험 기간 동안 많은 것을 포기해야 한다. 가족들에게는 미안하지만 휴일도 도서관에서 보내야 한다. 그래야만 합격의 달콤한 맛을 느낄 수 있다. 고생 끝에 낙이 오는 법, 미래의 유. 무형의 자산인 자격증 취득에 딸려오는 사람과 준비하는 모든 이에게 힘찬 응원의 박수를 보낸다.

생활정보전화		긴급전화	
▲이주여성긴급전화	1577-1366	▲법률구조상담	132
▲응급질병상담	1399	▲인광알코올상담센터	222-5666
▲여성긴급전화	1366	▲광주 남성의전화	673-9001
▲청소년상담지원센터	1388	▲광주 여성의전화	363-7739
▲아동보호전문기관	1577-1391	▲수도고장신고	121
▲노인보호전문기관	1577-1389	▲전기고장신고	123
▲응급의료센터	1399	▲가스사고 신고	383-0019

호남신문 i-honam.com 대표전화 (062) 229-6000
광주 서구 운천로 213 스카이랜드 309호

회장·발행인·편집인 김평호 편집국장 직무대리 서선옥

동부취재본부 전남 순천시 충효로 63 가동 2호 (061) 905-2011

서울취재본부 서울시 노원구 공릉로 62가길 16-1 (02) 2238-0003

기사제보 (062) 222-2580 광고직통 (062) 228-2580 팩스 (062) 222-5547

등록번호 광주가 00021 (일간) / 1946년 4월 창간 /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 인 쇄 (주)남도프린테크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호남신문 후원 및 회원제 시행합니다

결코 쉽지는 않지만 저희가 개척하겠습니다. 지금보다 건전해질 수만 있다면 어렵지만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외부로부터의 어떠한 압력이나 간섭에서도 자유롭기 위해서라면 당장의 손익에 급급해 하지 않겠습니다.

호남신문의 후원 및 회원제를 시행합니다.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 회원 여러분의 피와 땀이 배인 후원금을 소중히 접수하겠습니다. 후원금으로 광고의 일부를 대체해 광고주의 유무형 압력 등 편집권 침해로부터 탈피해 자유로운 제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 입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및 회원제의 시행으로 왜곡되지 않은 정론을 펼치는데 지역언론의 선봉장 역할을 자임합니다.

전국 일간지 최초로 복지면을 할애해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의 권익향상에 힘쓰고 있는 호남신문은 후원회원제를 통해 보다 더 굳건하게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당장 눈에 띄는 획기적인 성과를 기대하겠습니까마는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다보면 작은 내가 모여서 강을 이루듯 우리가 지향하는 목표점에 다다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회원들의 자발적 후원으로 운영되는 시스템을 차차 정착시켜 나갈 것입니다. 호남신문의 작지만 큰 변화의 몸부림에 시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기대합니다.

